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 월동지 순천만 생태계 복원 나선다

◇왜 순천만인가=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59마리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지난 1996년 11월, '전남지역동부사회연구소'와 '한국펄스학회' 조류연구의 선구자인 고(故) 김수일 교수가 실시한 순천만 자연생태조사에서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구·경북 등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들이 생태계 파괴로 차츰 그 수가 줄어들다가 1994년 마침내 모습을 감춘 지 2년 만이었다. 이후 순천만은 지난 2005년 한국의 네 번째 란타르습지(Ramsar Site)로 등록됨으로써 국제적인 생태보존지구가 됐다.

순천시가 환경운동연합과 손잡고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의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26~28일 서울 동안 순천만 자연생태관에서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을 갖고 흑

두루미 서식처인 순천만 생태계 복원 방안을 논의한다. 순천시는 또 환경운동연합과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는 협약도 체결한다.

년 곳이 많다. 습지의 농경지 전환, 비닐하우스 경작 등은 흑두루미들이 내려앉을 곳을 비좁게 한다.

국제두루미재단의 조지 아치볼드 박사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번식지와 월동지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순천시가 흑두루미 생태계복원 프로젝트를 치켜든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키운다=순천시는 이에 따라 순천만을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나아가 국립공원 등록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존·완충·개발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생태복원에 나서기로 했다. 개발 지역에도 기초적인 편의시설만 갖춘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엄과 환경운동연합과의 협력체제 가동으로 흑두루미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26~28일 국제 심포지엄 열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도 추진

수리강·아무르강·중국 동북지방 등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서남해안 및 동해안을 거쳐 일본 등지에서 월동한다. 이들 중 90% 이상이 일본 이즈미시가 조성해 준 인공 습지에서 겨울을 난다.

이렇게 한 곳에서 집단으로 겨울을 보내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희생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연서식지인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분산·월동하

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위기의 동북아 흑두루미=지난 2005년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227마리, 2006년에는 310여 마리로 늘어났다. 하지만 흑두루미를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흑두루미의 번식지로 추정되는 시베리아 남부 타이가 습지대는 개발과 벌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흑두루미들이 중간기착지 및 월동지로 이용하던 한국과 중국의 습지들은 더 이상 습지가 아



광주천에 잉어떼가 '펄떡펄떡'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천 '덕홍보' 하류에서 17일 오전 발견된 잉어떼. 광주천 호안조성 공사를 위해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하천물을 빼내자 물길에 30~50cm의 잉어 수백여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2004년 12월부터 2009년 말 완공 목표로 600여원을 들여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는 SK건설로 현 공정은 38%.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천만에 날아든 천연기념물 제 228호 흑두루미. 세계적으로 1만 마리에 불과한 희귀 조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학교 등 급식소 지하수 30% 각종 세균·발암물질 검출

보건복지부 국감자료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가 사용하는 지하수 30%에서 각종 세균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영욱 의원 광합성을 함에 따라 높은 pH와 용존산소 농도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청 관계자는 "높은 COD는 적조 발생 해역의 많은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총질소와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은 것은 다른 적조생물과는 달리 질소를 흡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곳이 음용수 기준을 벗어났다. 부적합 유형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가 19건, 일반세균 초과 검출이 12건이었으며 발암성 물질인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지하수가 3건으로 나타났다. 질산성 질소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혈액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지며, 심장병·뇌졸중·위암·소화기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올해 6월 현재 330개 지하수에서 660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질산성질소 기준초과가 168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푸른광주21·광주시 20일 재활용 축제

'푸른광주21협의회'와 광주시는 오는 20일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푸른 광주의 날 2007 재활용 축제'를 공동개최한다.

이날 개설되는 '재활용 큰 장터'에서는 생활용품과 서적 등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재활용 의류 패션쇼 ▲재활용 간판 콘테스트 ▲우리집 에코단지 경매 등 부대행사가 열린다.

이외 환경극 공연·재활용품 창작 작품 전시회 등도 마련되며 수익금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 중고 물품 판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협의회에 미리 신청하면 장소를 배정 받을 수 있으며, 기증된 물품은 경매를 거쳐 판매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적조 해역 COD 농도 높다

〈화학적산소요구량〉

여수해양수산청 6개소 환경 조사 결과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해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질상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COD는 0.88~2.77mg/L, 총질소는 0.04~0.38mg/L, 암모니아는 0.

04~0.37mg/L로 나타나 일반해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

적조 발생 해역에서 pH와 용존산소가 높게 나타난 것은 코클로리디움의 활발한 광합성 작용에 의한 때문이

다. 특히 적조 발생 해역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도 적조생물 코클로리디움 광합성을 함에 따라 높은 pH와 용존산소 농도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청 관계자는 "높은 COD는 적조 발생 해역의 많은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총질소와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은 것은 다른 적조생물과는 달리 질소를 흡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청 관계자는 "pH는 8.19~8.49, 용존산소농도는 6.81~10.63mg/L, 클로로필-a는 14.1~199.1μg/L로

생활안내 (Life Guide) advertisement with cartoon character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Property Manager) training course, mentioning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생 모집' (Recruitment of students for the employment insurance refund course).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Licensed Real Estate Agent Specialist Academy) with details about courses and contact numbers.

Advertisement for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Geirisan Hanbang Diet) featuring a person's bod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dietitian.